보험

Analyst 김현수 | 금융
02-3779-3969, hyunsoo.kim@sangsanginib.com

Neutral 유지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듀레이션 갭(Duration Gap) 톺아보기

듀레이션 갭은 금리 민감도가 아니라 자본 변동성의 문제

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서, 금리 변화는 더 이상 운용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변동성의 문제로 옮겨왔다. 보험사는 보장성 중심의 장기부채 구조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고, 이 때문에 금리 변화가 발생할 때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게 움직이기 쉽다. 결국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회사별 자본 훼손 폭이 다른 이유는 현재 K-ICS 수준보다 자산과 부채의 민감도 구조, 즉 듀레이션 갭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 점에서 듀레이션 갭은 보험사의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할인율 현실화는 보험부채를 다시 쓰는 과정

보험사 듀레이션 갭에서 가장 중요한 부채 항목은 보험계약부채, 그중에서도 최적추정부채(BEL)다. BEL은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측정하는 항목으로, 보험부채 가운데 금리 민감도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때 할인율 체계의 핵심은 장기선도금리(LTFR)와 최종관찰만기(LOT)인데, 최근 몇 년간 부채 할인율은 전반적으로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장기선도금리 조정과 LOT 확대는 장기 구간 할인율을 과거보다 낮추는 효과로 이어졌고, 같은 계약이라도 미래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면서 BEL을 증가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이 LOT 확대의 속도는 조절하면서도 방향 자체는 유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인율 현실화를 되돌리지는 않되, 건전성 부담의 속도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의 방향은 총량 완화가 아니라 체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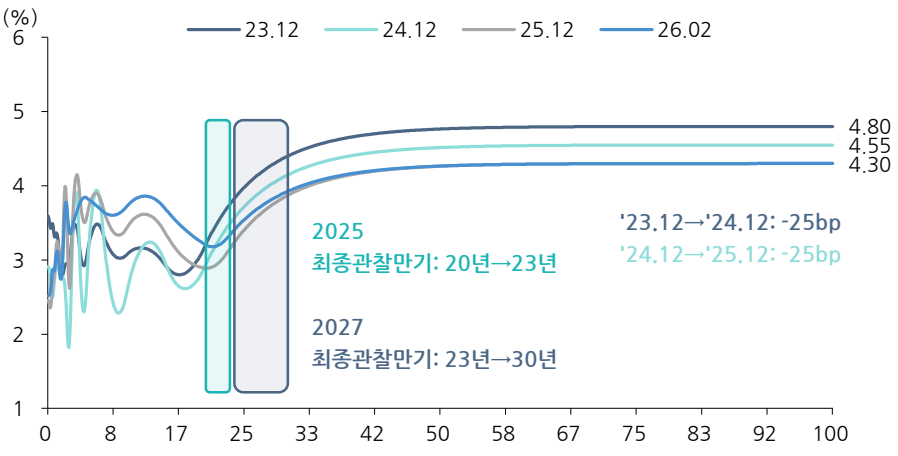
자산 측면에서 금리 민감도와 비중이 높은 항목은 운용자산, 그중에서도 FVPL과 FVOCI 유가증권이다. 두 계정 모두 금리 변화의 영향을 받지만, FVPL은 손익 변동성에, FVOCI는 자본비율 변동성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자산도 금리에 반응하지만 부채 듀레이션이 더 길면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보험사의 핵심 과제는 금리 방향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금리 변화가 와도 자본정책과 주주환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듀레이션 갭을 별도 규제 대상으로 끌어올리고, 경영공시와 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금리 변화 속에서도 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서, 금리 변화는 더 이상 운용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변동성의 문제로 옮겨왔다. **보험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계산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곡선이 부채 규모를 좌우한다.**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고, 할인율이 낮으면 현재가치는 커진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할인율 하락이 곧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자산이 그대로인데 부채가 늘어나면 순자산은 줄고, 이는 가용자본 감소와 K-ICS 하락으로 이어진다. **보험사는 대체로 보장성 중심의 장기보험부채로 인해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다.** 이 때문에 금리 변화가 발생할 때 순자산과 자본비율도 더 크게 흔들린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어떤 회사는 자본 훼손이 제한적이고, 어떤 회사는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사 듀레이션 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보험계약부채, 그 중에서도 최적추정부채(BEL)다. BEL은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측정하는 항목으로, 보험부채 가운데 금리 민감도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 체계의 핵심이 장기선도금리와 최종관찰만기다. 장기선도금리(LTFR)는 아주 먼 만기의 금리가 장기적으로 어디에 수렴할 것인가를 정하는 숫자이고, 최종관찰만기(LOT)는 시장에서 실제 국고채 금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만기다. LOT 이전 구간은 실제 시장금리를 쓰고, LOT 이후 장기 구간은 장기선도금리를 향해 금리곡선을 이어 붙인다. 이 구조에서 장기선도금리가 내려가면 장기 구간 할인율이 낮아지고, LOT가 길어지면 시장에서 관찰되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더 먼 구간까지 직접 반영된다. 최근 몇 년간 부채 할인율은 전반적으로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고, 이는 장기 구간 전체의 할인율을 과거보다 낮추는 효과로 이어졌다. 같은 계약이라도 미래 현금유출의 현재가치가 더 크게 평가되면서 BEL이 증가하고, 자본비율에는 하방 압력이 커진다.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의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방향 자체는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할인율 현실화를 되돌리지는 않되, 그 과정에서 나타날 건전성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행 속도만 조정한 것**이다. 결국 할인율 체계의 변화는 일회성 제도 이슈가 아니라, 장기부채를 과거보다 더 무겁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재정렬하고 있다.

그림 1. K-ICS 할인율(장기선도금리 '26.02 기준)

관찰구간 → 국고채 시장금리
보간·외삽 → Smith-Wilson
수렴구간 → LTFR 목표 수렴
최종관찰만기 단계적 확대
LTFR=실질금리+기대인플레이션



자료: 금융감독원, 상상인증권

자산 측면에서 금리 민감도와 비중이 높은 항목은 운용자산, 그중에서도 **FVPL과 FVOCI 유가증권**이다. 두 계정 모두 금리 하락 시 평가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FVPL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손익 변동성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FVOCI는 평가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을 통해 자본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결국 같은 금리 변화라도 보험사에 미치는 효과는 손익과 자본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문제는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다는 점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자산도 증가하지만, 부채의 상승 폭이 자산보다 더 크다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한다. 반대로 금리 상승 시에는 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본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긴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 BEL 감소를 통해 순자산을 늘리고 K-ICS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리 상승은 손익 측면에서는 FVPL 평가손실 부담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자본비율 측면에서는 대체로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신규 자산 재투자수익률 제고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에 **금리 상승은 자본과 운용 양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듀레이션 갭의 의미는 더 분명해진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비슷하면 금리가 움직여도 순자산 변동성이 제한되지만, 갭이 클수록 금리 변화에 대한 자본의 취약성은 커진다. 결국 **듀레이션 갭은 보험사 경영진이 ALM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대상이자, 감독당국이 최근 별도 규제 대상으로 끌어올린 핵심 변수**다. 현행 제도에서도 듀레이션 갭은 금리리스크를 통해 간접 반영되고 있었지만, 당국은 그것만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과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의 개념을 제도에 직접 도입하고, 경영공시와 경영실태평가에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논리도 단순하다. **듀레이션 갭이 확대되면 금리 변동 시 순자산 변동이 커지고, 이는 요구자본 증가와 K-ICS 비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표 1. K-ICS 지급여력 비율 추이

구분	'22 말	'23 말	'24 말	1Q25	2Q25	3Q25
생보사(경과조치 후)	206.4%	232.8%	203.4%	190.7%	200.9%	201.4%
손보사(경과조치 후)	205.1%	231.4%	211.0%	207.6%	214.7%	224.1%
전체(경과조치 후)	-	-	-	-	206.8%	**210.8%(+4.0%p)**
전체(경과조치 전)	-	-	-	-	192.1%	**196.8%(+4.7%p)**

자료: 금융감독원, 상상인증권
주: 전체 업종 확정치 기준

'25.3Q 개선 원인: 당기순이익 +3.3조, 기타포괄손익 +7.1조(주가상승), CSM +3.0조 / **듀레이션갭 축소로 금리위험액 △2.2조원 감소 확인**

표 2. 듀레이션 갭 개념 및 구조

구분	내용	영향
듀레이션 정의	금리 ±1%p 변동 시 건전성회계 상 금리부 자산·부채 가치의 변동비율 (유효듀레이션)	금리 민감도 지표
듀레이션 갭 정의	자산듀레이션 − 부채듀레이션 × [금리부부채/금리부자산] / 음수(−) → 부채 듀레이션 > 자산	**갭 클수록 순자산 변동폭 확대** → 요구자본↑ → K-ICS↓
국내 특성	해외 대비 장기상품 비중 높아 부채·자산 듀레이션 모두 길게 관리	갭 평균은 해외와 유사. 다만, 편차가 큼 / 알리안츠·다이이치는 0.1 년 수준으로 관리
구조적 취약점	IFRS17 하 시가평가 → 금리 하락 시 부채 증가폭 > 자산 증가폭	기타포괄손익 감소 → 자기자본 직접 차감

자료: 상상인증권

제도 변화의 흐름도 이와 같다. 2025년 6월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인허가나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에 적용되는 K-ICS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조정했고, 하반기 중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계리가정 검토를 건전성 TF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량 기준은 현실화하되, 건전성 관리의 핵심은 자본의 질과 변동성 관리로 옮기겠다는 의미**다. 이어 7월 건전성 TF 1차 회의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판매경쟁과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 금리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건전성 부담이 커졌다는 진단이 제시됐고, 특히 보험부채 시가평가 체계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민감도를 맞추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그 연장선에서 10월 최종안은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나눠 적용하는 대신, 듀레이션 갭 규제는 별도로 도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2026년 1월 발표된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 도입안은 이 흐름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총 K-ICS는 보완자본으로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금리위험액 확대는 요구자본을 늘려 기본자본비율까지 직접 압박한다. 결국 **듀레이션 갭 관리는 앞으로의 기본자본 규제 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할인율 변화와 듀레이션 갭은 결국 함께 작동한다. 장기선도금리 조정과 LOT 확대는 업계 전체의 공통 환경이지만, 같은 환경 변화라도 어떤 회사는 K-ICS가 소폭만 흔들리고 어떤 회사는 크게 움직인다. 차이는 현재 K-ICS의 절대 수준보다, 금리가 변했을 때 자본비율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좋은 보험사를 평가할 때는 현재 K-ICS 숫자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금리가 움직였을 때도 그 자본비율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폭을 자산·부채 구조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자본비율은 현재값보다 변화율이 더 중요하고, 그 변화율은 할인율 체계와 ALM이 결정**한다. 최근 금감원이 요구자본 변동 요인 가운데 듀레이션 갭 축소에 따른 금리위험액 감소를 별도로 짚은 것도 이 때문이다. **듀레이션 갭 관리가 장기적인 체질 개선 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 요구자본과 K-ICS 변화에 반영되는 현실 변수**라는 뜻이다. 결국 지금 보험사가 대응해야 하는 것은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부채 구조를 조정하며, 금리 변화가 와도 자본정책과 주주환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 자체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것도 더 높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금리 변화에도 덜 흔들리는 자본 구조다.

표 3. 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 로드맵

시점	내용
2025.06 ~ 2025.09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 실태점검**
2025 中	계량영향평가(QIS) 진행. 강화된 금리리스크 평가기준 마련
2026 ~	감독규정 개정 — 듀레이션·갭 공식 정의 도입. 경영공시 항목 추가(시장규율 작동)
2027 ~	경영실태평가 금리리스크 항목 직접 편입. 범위 초과 시 4 등급 이하 자동 강등. 기본자본비율(50%) 규제 동시 시행
2028 ~ 2029년	최종관찰만기 24 년으로 재개. 이후 매년 1 년씩 확대
2035년	최종관찰만기 30 년 완성. 기본자본비율 경과조치 종료('36.3 말)

자료: 상상인증권

표 4. 건전성 규제 주요 변경사항

시점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K-ICS 권고기준 (후순위채·인허가)	150% 이상	130% 이상	2025.06.11
후순위채 중도상환	150% 미만 시 요건 충족 필요	130% 이상 시 요건 면제, 금리조건 삭제	2025.06.11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손해율초과+순손실+영업손실 3 가지 동시	손해율 초과만으로 환입 가능	2025.06.11
기본자본 K-ICS비율	경영실태 하위항목만	50% 이상 의무화. 미달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경과조치 9 년	2027.01.01
듀레이션갭 규제	간접 반영만 존재 (직접 규제 X)	경영실태평가 직접 편입. 초과 시 4 등급 이하 강등. 경영공시 의무화	2027 년 ~
해약환급금준비금	150% 이상 시 80% 하향 가능	최종기준 130%로 조정 ('25 년 적용 170%)	2025.06.11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표 5.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구분	'25	'26	'27	'28	'29	'30	'31~'34	'35
기존 계획	23 년	26 년	30 년	30 년	30 년	30 년	30 년	30 년
개선 계획	23 년	23 년	23 년	24 년	24 년	25 년	매년 1 년↑	30 년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표 6. 생명보험사 K-ICS 비율 현황('25.9월말)

회사	경과조치 전 '25.06	경과조치 전 '25.09	증감	경과조치 후 '25.09	비고
삼성생명	186.7%	192.7%	+6.0%	192.7%	경과조치 미적용 양호
교보생명	152.7%	157.2%	+4.4%	205.2%	경과조치 의존
한화생명	160.0%	158.2%	-1.8%	158.2%	미적용·하락
신한라이프	199.6%	189.7%	-9.9%	189.7%	미적용·급락
농협생명	258.4%	261.4%	+3.0%	431.8%	경과조치 의존 높음
KB라이프	250.6%	253.5%	+2.9%	253.5%	미적용·양호
KDB생명	43.3%	43.5%	+0.2%	165.2%	경좌조치 전 취약
iM라이프	95.1%	101.8%	+6.7%	203.2%	경과조치 의존 높음
푸본현대생명	-10.1%	2.9%	+13.1%	174.1%	경과조치 전 음수

자료: 금융감독원, 상상인증권

표 7. 손해보험사 K-ICS 비율 현황('25.9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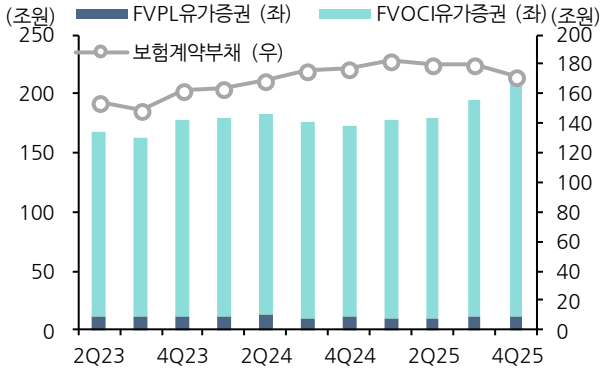
회사	경과조치 전 '25.06	경과조치 전 '25.09	증감	경과조치 후 '25.09	비고
삼성화재	274.5%	275.9%	+1.4%	275.9%	최상위
메리츠화재	239.8%	243.7%	+3.9%	243.7%	양호
DB손보	213.3%	226.5%	+13.2%	226.5%	양호
현대해상	170.0%	179.8%	+9.8%	179.8%	개선
KB손보	191.5%	191.2%	-0.3%	191.2%	보합
한화손보	179.5%	178.4%	-1.1%	212.7%	경과조치 적용
롯데손보	108.7%	115.3%	+6.6%	142.0%	취약
하나손보	141.3%	123.6%	-17.7%	123.6%	권고기준(130%) 미달
캐롯손보	67.1%	47.9%	-19.1%	47.9%	100% 미달

자료: 금융감독원, 상상인증권

생보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보험계약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금리 민감도가 높은 유가증권 자산도 함께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계약부채 중에서도 최적추정부채(BEL)는 할인율 변화에 가장 민감한 핵심 부채이고, 4분기 보험계약부채 감소는 할인율 변화에 따른 BEL 축소와 계리가정 재측정, 그리고 보유계약 감소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구조에서는 금리 하락 시 자산도 증가하지만 부채 증가 폭이 더 크면 순자산이 감소하고 K-ICS도 하락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보다, 보험계약부채 증가에 대응해 금리 민감 자산을 얼마나 적절히 축적해 왔는지다. IFRS17 이후 생보사들은 장기부채 확대에 대응해 자산 측 금리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구조를 조정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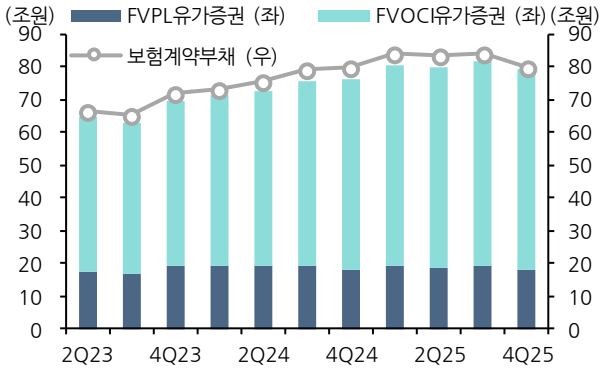
다만 회사별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는 FVPL보다 FVOCI 중심의 자산 축적이 더 뚜렷해 자본비율 방어형 포트폴리오 성격이 강하고, 교보생명은 자산과 부채의 동행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화생명은 상대적으로 FVPL 비중이 더 높아 손익 민감도가 큰 구조에 가깝다. 즉 같은 생보사라도 금리 변화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 부채 규모보다, 어떤 계정의 금리 민감 자산으로 대응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듀레이션 갭을 평가할 때도 현재 숫자 하나보다 보험계약부채 확대에 맞춰 자산 구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정해 왔는지가 더 중요하며, 이 차이가 향후 자본비율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차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삼성생명 운용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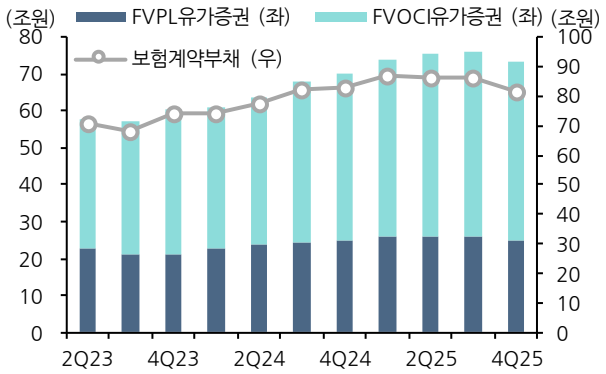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그림 3. 교보생명 운용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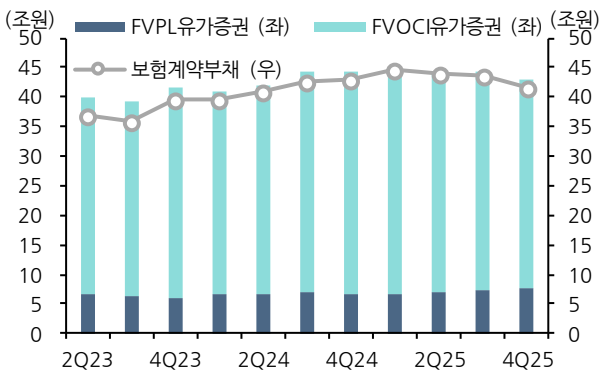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그림 4. 한화생명 운용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추이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그림 5. 신한라이프 운용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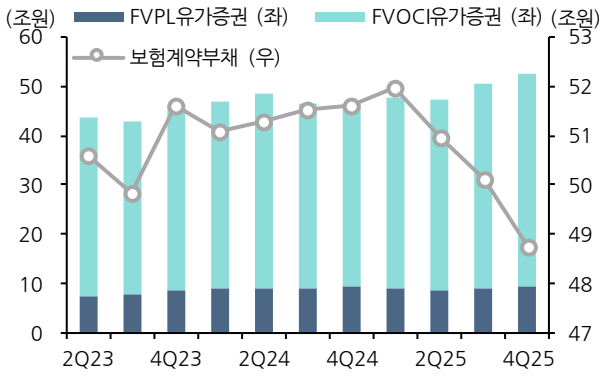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손보사에서도 보험계약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금리 민감도가 높은 유가증권 자산이 함께 확대됐다. 다만 생보사와 비교하면 자산 계정 구성의 차이가 더 뚜렷하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FVPL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FVOCI 중심의 자산 확충이 이어지며 자본비율 방어형 포트폴리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DB손보와 현대해상은 FVPL 비중이 더 높고, 특히 최근으로 갈수록 FVPL 확대가 두드러져 금리 변화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는 구조에 가깝다. 그럼에도 네 회사 모두 보험계약부채 증가에 맞춰 금리 민감 자산을 병행 확충해 왔다는 점에서, IFRS17 이후 손보사 역시 ALM 관점에서 자산·부채 대응을 강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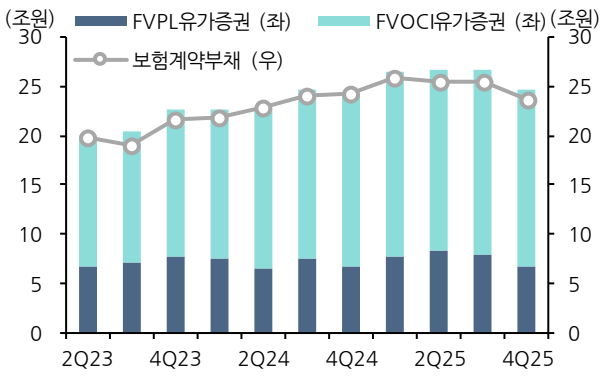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보험계약부채가 2025년 중반 이후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FVOCI는 꾸준히 확대돼 자본비율 측면의 완충력이 가장 안정적으로 축적된 모습이다. 메리츠화재도 자산과 부채의 동행성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FVOCI 중심 구조가 유지되며, 전체적으로 자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운용이 드러난다. 반면 DB손보와 현대해상은 최근 FVPL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자산 측 금리 민감도가 커졌고, 이는 금리 상승 시 자본비율 방어에는 우호적일 수 있지만 당기손익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손보사 역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보험계약부채 확대에 대응해 어떤 계정의 금리 민감 자산을 얼마나 쌓아왔는지이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는 자본비율 방어형, DB손보, 현대해상은 상대적으로 손익 민감도가 더 큰 구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6. 삼성화재 운용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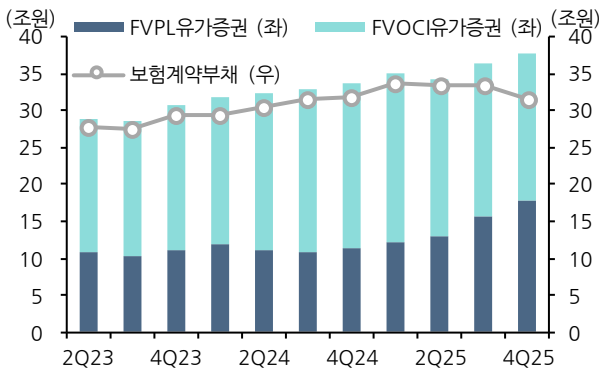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그림 7. 메리츠화재 운용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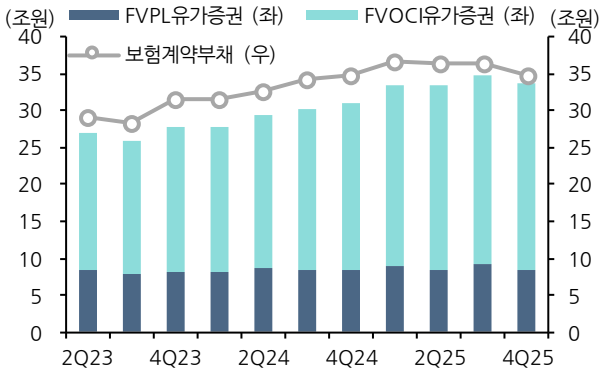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그림 8. DB손해보험 운용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추이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그림 9. 현대해상 운용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추이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김현수)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구분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투자등급	투자의견 비율	비고	구분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투자등급	투자의견 비율	비고
산업 (Industry)	**투자등급 3단계** 향후 12 개월 시장대비 상대수익률	Overweight (비중확대)	76.9%	시가총액 대비 비중확대	기업 (Company)	**투자등급 3단계** 향후 12 개월 절대수익률	BUY	93.2%	절대수익률 15% 초과
		Neutral (중립)	23.1%	시가총액 수준 유지			HOLD	6.8%	절대수익률 +15%~ -15%
		Underweight (비중축소)	0.0%	시가총액 대비 비중축소			SELL	0.0%	절대수익률 -15% 초과
			합계 100%					합계 100%	